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⑤ 통상)

목 차

■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⑤ 통상)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통상 부문의 문제점	2
3. 통상 부문의 비전과 전략	7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 개요

최근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무역 및 통상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부진, 저유가 지속,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등 대외적 요인이 지적된다. 그러나 대외적·경기적 요인보다 한국 수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면 향후 세계 경기 개선에 대한 수출 회복 탄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수출의 회복을 저해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향후 무역·통상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통상 부문의 문제점

통상 부문에서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저부가가치 수출 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하다.** 한국은 세계 수출 8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형 수출 구조로 인해 실제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외수의 내수로의 낙수 효과를 약화시켜 실제 수출이 미치는 경제 기여도를 하락시킨다. 또한 저부가가치형 수출 구조로는 선진국을 추월하기 어렵고 신흥국의 추격에 위협받는 샌드위치식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미래 수출 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 **둘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가 한국 수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생산·수출에서 소비·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내실을 강화하며 중·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되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경제·무역구조 변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보유한 한국에 동시에 타격을 입힐 것이 우려된다. **셋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노출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 외교적 이슈들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 통상 부문의 비전과 전략

(비전) 향후 한국경제가 통상 부문에서 가지고 가야될 비전은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이다.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 부문 3대 전략으로는 ①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 ② 부가가치 중심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③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이다.

(과제) 제시된 전략중 ①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대미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해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외교를 강화해 미국과의 마찰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관계를 강조하고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간 대화 채널 확대로 중국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상호 의존 관계가 높은 양국의 경제 구조를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중간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동북아 경제권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 요인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해 현재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장기적 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방 및 자유 무역 중심의 통상 기조 하에 메가 FTA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기존 FTA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상정책 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해야 하며, 국제 무역 규범을 벗어난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 부가가치 중심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넷째,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우선 총수출액 중심의 외형적, 1차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 핵심 소재·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하고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로 가치사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개발, 디자인, 기획 능력 등 제조 전후 단계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조 부문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생산 공정의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쇼어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내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여섯째,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 개편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가공·조립 및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재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수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일곱째,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높은 구매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동시에 선진국 글로벌 기업과 국내 공급사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 지속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고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국가에 치중된 수출 비중을 낮추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통상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전략 1.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

- 대미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외교 강화
-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관계 강조 및 동북아 경제권 주도 노력
- 중장기적 통상 전략 수립 및 통상 역량 강화

전략 2. 부가가치 중심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 고부가· 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
-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로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전략 3.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

-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 개편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 공략
-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 지속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1. 개요

- 최근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무역 및 통상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증대
 - 최근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부진, 저유가 지속,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 등 대외적 요인이 지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수출 성장세도 둔화되는 현상이 지속
 -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로 수출 물량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2014년 이후 급락한 국제 유가로 인해 수출 단가가 하락하며 2년 연속 수출 역성장을 기록
 - 글로벌 밸류체인 성숙화, 디지털 무역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증가율 간 연관성도 약화
 - 그러나 대외적·경기적 요인보다 한국 수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향후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탄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심화
 - 최근 2년간 부진했던 수출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 그러나 세계 수출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에 내재된 문제가 더 클 경우, 수출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최근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수출의 회복을 저해하는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무역을 주도했던 자유무역주의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움직임이 포착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국가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 타격이 우려

- 이에 향후 통상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성 부상
-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수출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국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새로운 무역 질서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2. 통상 부문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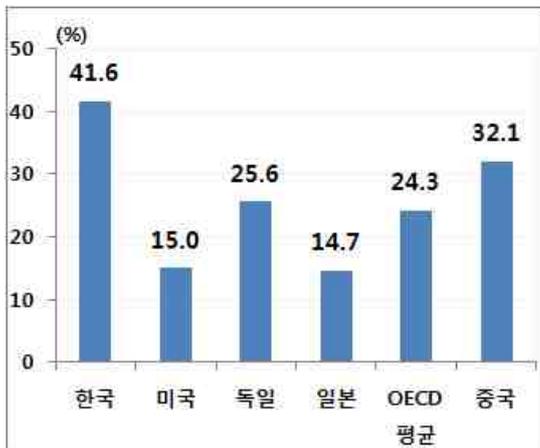
- 통상 부문에서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저부가가치 수출 구조와 신흥국의 추격,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구조변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노출 등을 들 수 있음

① 저부가가치 수출 구조와 신흥국의 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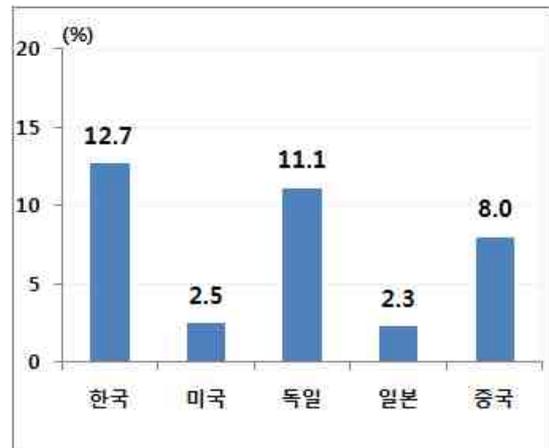
- 세계 8위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부가가치형 수출 구조로 인해 실제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크지 않은 한계
- 총 교역량 방식의 전통적인 무역 측정 방식은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된 현재의 생산, 수출 구조에서 각국이 최종재의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한국은 수출에서 해외 부품 또는 중간재로 인해 해외 부문에서 유발된 부가가치 비중이 41.6%(2011년 기준)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및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
- 즉,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 8위(2016년 기준)로 양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해외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할 경우 수출로 실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양적 성과 대비 크지 않음
- 이는 국내 부존자원의 부재로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은 지리적 한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낮은 조립·가공 중심의 생산·수출 구조,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수출 시장의 외연 확대에 만족하고 양적인 확대에 주력할 경우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 인해 실제 수출이 미치는 경제 기여도는 낮아지게 됨
 - 저부가·저기술 제품 중심의 생산 구조와 핵심 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수출 기업 및 국내 경제에 실제 귀속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하락시킴
 - 즉, 외수 부문에서의 성과가 내수 부문으로 이전되는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내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낙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 이는 민간의 소비·투자 제약, 정부의 조세 수입원 확보 어려움 등으로 귀결
-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는 선진국을 추월하기 어렵고, 신흥국의 추격에 위협받는 샌드위치식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미래 수출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
 - 산업·생산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되지 못하고 저부가가치형에 머무른다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범용 제품 위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밖에 없음
 - 이 경우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인건비, 풍부한 부존자원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흥국들의 추격에 오히려 쫓기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미래 수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짐

<그림> 총수출 중 해외 발생 부가가치의 비중(2011년) <그림> 중요중간재수입/GDP 비율 (2011년)¹⁾



자료 : OECD.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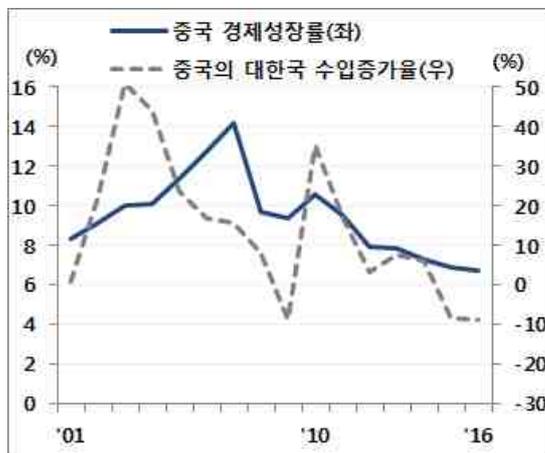
-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에 직면한 중국은 생산·수출에서 소비·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개편, 제조업 기반 고도화 등 내실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
 - 중국 경제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1981~1990년 9.8%, 1991~2000년 10.6%, 2001~2010년 10.7%로 30년 동안 고성장이었으나,²⁾ 최근 성장률이 6%대로 진입하는 등 뉴노멀 시대로 진입할 것이 전망
 - 중국은 과거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해왔으나, 지속 가능 성장의 한계, 경착륙 우려, 환경오염 악화 등 기존 성장방식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구조 고도화, 안정적 성장 등을 목표로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
 - 이에 따라 단순 가공·조립 중심의 생산·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수입에 의존해오던 중간재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저성장 시대로의 진입이 가시화되면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곧 중국 내 한국산 제품의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하락할 가능성
 - 게다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25%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감소는 곧 전체 수출 성장 둔화와 직결되는 문제
- 동시에 중국의 경제·무역구조 변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보유한 한국에 타격
 - 중국의 총 수입 중 부품 수입 비중은 2000년대 초반 60%에 육박했으나 2016년 기준 46%까지 하락하는 등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해

1)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부가가치 유희률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경제주평 14-45, 201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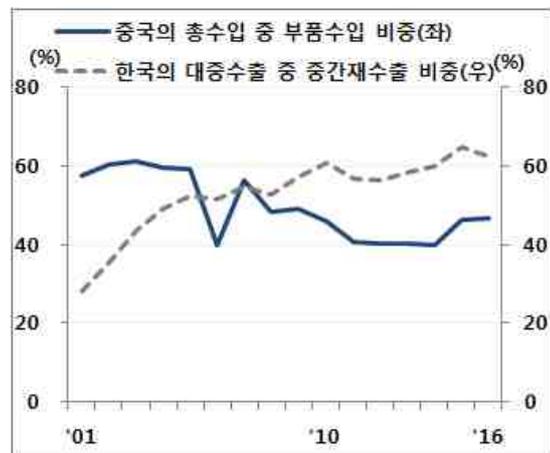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경제주평 15-40, 2015.10.02.

- 외 부품 수입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수출 비중은 이와는 반대로 2000년대 초반 약 20%에서 2016년 기준 약 60%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구조가 중간재에 집중
- 앞으로도 중국 제조업의 가공·조립 역할이 약화되고 고부가가치화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무역 구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

<그림> 중국 경제성장률과 중국의 <그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대한국 수입증가율 추이와 중국의 부품 수입 비중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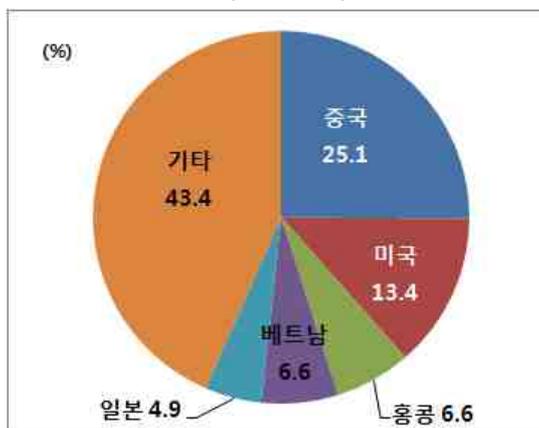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③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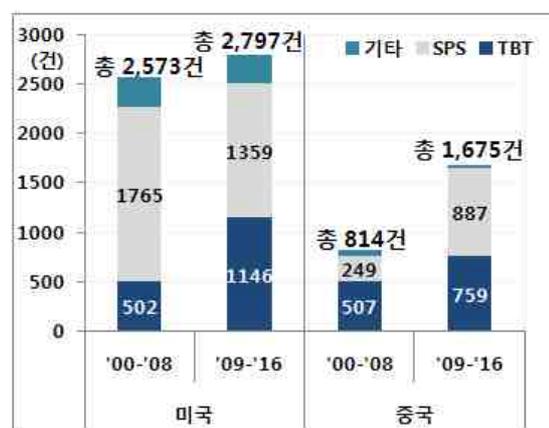
- 최근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조치는 증가 추세를 기록
- 미국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기술장벽(TBT) 부문이 크게 증가
- 중국은 동기준 각각 814건, 1,675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우리에게 대한 보호무역이 2배 급증

- 특히 최근 정치, 외교적 이슈들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상황
 - 미국은 FTA 기체결 국가들 중 NAFTA, 이스라엘, 한국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FTA 재검토 등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
 -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화장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만약 사드발 무역 보복 조치가 중간재까지 확산된다면 대중국 수출 타격이 커질 전망
-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려감 확산
 - 미국 트럼프 실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거래를 지적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양국간 무역 갈등이 지속적이고 심화될 가능성
 - 미·중 간 갈등으로 중국 수출 위축시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 수출도 타격

<그림>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 <그림> 미국 · 중국의 대한국 보호 무역 건수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 1) 2016년은 8월까지 누적 기준.
- 2) 기타에는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수량제한, 반덤핑 등이 포함.

3) 현대경제연구원, '미중의 대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16-41, 2016.10.14.

3. 통상 부문의 비전과 전략

<그림> 통상 부문의 비전과 전략 요약

비전: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전략 1.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

- 대미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외교 강화
-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관계 강조 및 동북아 경제권 주도 노력
- 중장기적 통상 전략 수립 및 통상 역량 강화

전략 2. 부가가치 중심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 고부가· 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
-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로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전략 3.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

-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 개편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 공략
-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 지속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 통상 부문 비전: 통상정책 정립을 통한 국제교역 네트워크 주도

□ 통상 부문 3대 전략

①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

② 부가가치 중심 교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③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

□ 통상 부문 8대 과제

전략 1 경제통상 외교 강화로 동북아 경제권 주도

① 대미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외교 강화

-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과 중국 간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해진 상황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국의 무역적자 축소 및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
-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 제재 등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이 확실시
- 미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과 정책을 도입하면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실질적인 타겟 국가는

중국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해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마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의 빌미를 작용할 수 있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을 관리하자는 논의가 부상
- 이 경우, 미국산 원유 및 상품 수입 확대 유도 등 대미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중 한국이 해당된 2가지 요건, 즉 1) 대규모 무역 흑자와 2)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요건 지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3번째 요건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부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마땅
- 즉, 미국이 문제삼을 수 있는 ‘원화가치 약세를 위한 달러매수’ 부문에 대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외환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외교를 강화해 미국과의 마찰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 미국 정부, 의회, 기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
- 특히, 미국이 문제삼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발생이 환율 문제가 아니라 교역조건 및 내수부진 등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원유 수입선 신규 도입과 같은 정부 당국의 노력을 홍보

②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관계 강조 및 동북아 경제권 주도 노력

- 한·중간 대화 채널 확대로 중국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상호 의존 관계가 높은 양국의 경제 구조를 강조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대중국

-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최근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이 미치는 상황
 -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3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3대 투자유입국 등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
 - 또한 중국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에서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아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제 제재는 수출, 고용 등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음
 - 한·중 간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음을 제시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
- 나아가 한·중간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동북아 경제권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 요인을 발굴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회 요인을 발굴
 -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변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기회를 모색

③ 중장기적 통상 전략 수립 및 통상 역량 강화

- 무역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해 현재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장기적 통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
 -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 한국도 중장기적인 통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
 - 협소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현재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동참하기 보다는 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
- 개방 및 자유무역 중심의 통상 기조 하에 메가 FTA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기존 FTA의 실효성을 제고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TPP 탈퇴 선언 등 FTA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FTA 정책이 표류하고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등 메가 FTA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북아 경제권 등 지역 경제 통합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또한 기 체결한 FTA에 대해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양국간 경제·통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협상력을 강화하여 기존 규정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
 - 하드 브렉시트를 내세운 영국과도 새로운 FTA 체결을 서둘러 브렉시트로부터 야기된 무역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EU 및 영국에 대한 수출 전략을 재정비
- 통상정책 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
- 향후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
 - 통상업무는 여러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정책 연속성 지속 및 전문성 확보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통상관련부서의 재편이 필요
 - 동시에 통상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양성함으로써 통상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에 주력
- 국제 무역 규범을 벗어난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해 대응**
- WTO나 국제 분쟁기구를 통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
 - G20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 정상회의뿐 아니라, 무역중재 회의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해당국과 상설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함해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의견 제시 필요

전략 2 부가가치 중심 무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④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

- 총수출액 중심의 외형적, 1차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
 - 현재의 수출 정책, 관련 통계 등은 모두 총수출액과 같은 외형 규모 중심의 1차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 2조달러 달성’ 홍보와 같이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했던 과거 수출 전략을 탈피하고 현재 수출 현황을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
- 기초 핵심 소재·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생산을 확대하고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필요
 - 저부가가치 생산·수출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 중간재 단계 부가가치의 중심이 되는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확보 및 관련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부품에 비해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 소재 부문의 경우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국내 수요 확충 노력이 요구됨
-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주력
 -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 구조에서는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R&D 투자 정책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 중장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 성장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집중적으로 추진

⑤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로 가치사슬 경쟁력 확보

- 국내의 연구개발, 디자인, 기획 능력 등 제조 전후 단계의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제조 생태계의 고도화를 추진
 - 산업용 로봇의 투입, 제조 공정의 모듈화 진행 등으로 향후 제조공정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제조업의 가치 사슬에 있어 중간 단계인 제조 공정보다 연구개발, 디자인, 기획, 서비스 등 전후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보다 높아질 전망
- 제조 부문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생산 공정의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쇼어링을 확대하여 국내 수출 기반을 강화
 - 미국, 독일 등 주변 선진국들은 해외로 이동했던 생산 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유턴기업지원법’ 제정 등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
 - 인건비 부담, 각종 규제 등 국내 생산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쇼어링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국내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내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스마트 공장 보급, 산업용 로봇 투입,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생산 방식의 변화 트렌드를 읽고, 생산공정의 혁신을 통해 국내 생산성 향상을 강화

전략 3 시장별 수출전략 재편으로 ‘Made in Korea’ 확산

⑥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 개편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가공·조립 및 중간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재 비중을 확대하는 수출 구조 전환이 필요
 - 중국이 수입에 의존해오던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정책을 추진하고,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
 - 그러나 거대한 인구 규모 및 1인당 GDP 성장 속도와 함께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는 소비재 시장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음
 -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소득 및 소비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 등 차별화 전략을 확보해야 함

⑦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 공략

- 높은 구매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 확보가 우선
 - 선진국 시장은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력도가 높은 시장
 - 소비재의 고급화, 중간재의 고기술화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선진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
- 선진국 글로벌 기업과 국내 공급사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
 - 이미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노력을 전개
 - 선진국 시장의 소득별, 인종별, 소비 패턴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장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

⑧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 지속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고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성장 지역 발굴 노력을 지속
 - 신흥국 시장은 개발 수요가 높은 인프라 시장 차원에서 접근하고 제조, 건설, 서비스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다면 수출 기회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등은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와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으로서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도 높은 수입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집중 전략이 필요
 - 신흥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 한국 이미지 제고 등 수출 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류 마케팅을 연계하는 등 내수시장 공략 전략도 수립
- 이를 통해 일부 국가에 치중된 수출 비중을 낮추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 수출 시장 다변화는 특정 지역의 상황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에 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 국가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

백다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